

“나무를 심는 것 못지않게, 나무는 가꾸어야 합니다”

Perenlei Urijinkhudev 주한 몽골대사를 푸른숲선도원 명예대사로 위촉

2007년 2월 14일 한남동 소재의 몽골대사관에서, 푸른숲선도원 명예대사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한그루녹색회 최준석 운영위원장은 주한몽골대사 Perenlei Urijinkhudev께 한국과 몽골과의 숲을 통한 청소년 문화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위촉패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한국과 몽골의 청소년들이 나무를 심는 것 못지않게 나무를 가꾸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신 몽골대사의 말처럼 몽골과 한국의 청소년들이 하나 되어 자연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Perenlei Urijinkhudev : 우선, 여러분들께서 우리 대사관을 찾아주시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최준석 : 어른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푸른숲 선도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숲을 가꾸고 키우는 그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대사님을 저희 단체에서 처음으로 푸른숲선도원 명예대사님으로 위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점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Perenlei Urijinkhudev : 몽골도 한국처럼 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심어만 놓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에 못지않게 심어놓은 것을 가꾸는 것,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준석 : 일단은 미래의 아이들 양성측면에서 그러한 것들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Perenlei Urjinkhudev : 그런 의미에서 몽골의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 특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나무를 심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무를 관리하는 법, 나무를 사랑하고 자연 자체를 사랑하는 정신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 분들은 경험이 많습니다. 우리몽골과 한국이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러한 협력,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노력을 합쳐서 좋은 일을 했으면 합니다.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최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그루녹색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준석 : 오히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바쁘신데 시간을 내 주셔서 고맙구요, 저희가 또 대사관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협력 부탁드립니다.

Perenlei Urjinkhudev : 감사합니다.

최준석 : 고맙습니다.

Perenlei Urjinkhudev : 머지않아 설날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최준석 : 건강하십시오.

